

조선 간행 『두과회편』 저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ext of *Dugwa-hwipyeon* (Collection of Smallpoxology) in Joseon Dynasty

朴 薰 平 (Park, Hun-Pyeong)*

◁ 목 차 ▷

- | | |
|-------------------|-----------------|
| 1. 서론 | 4. 조선간본의 의의와 한계 |
| 2. 조선간행 『두과회편』 서지 | 5. 결 론 |
| 3. 조선간본의 저본 | <참고문헌> |

< 초 록 >

전염병이 조선후기 사회에 미친 영향에 비하여 기존의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조선후기의 전염병 전문서는 상당수가 필사본에 의해 전승되는 만큼, 본격적인 내용 연구에 앞서 서지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본고는 조선간행 『두과회편』의 저본을 확정하고 조선 간행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논하였다. 적량에 의해 저술된 천연두 전문의서인 『두과회편』은 청대에 여러 차례 간행되었고, 조선에서도 목판으로 간행되어 동아시아 두창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책의 『영영본』은 1773년에 중국에서 간행된 『치화당각본』을 저본으로 삼아 일부 수정만 한 채 간행되었는데, 이 판본은 조선에서 간행된 유일한 판본이다. 이 책의 편제는 당시 조선에서 통용되던 『두창경험방』의 편제와 유사한데다, 내용도 풍부하고 잘 정리되어 천연두 치료의 종합 지침서로서 역할이 가능했다.

要語: 두창, 『두창경험방』, 『두과회편』, 영영본, 『마진편』, 『두과유편석의』

< ABSTRACT >

Compared with the influence of the infectious disease on the late Chosun society, precedent research is very limited. Since many epidemic texts of late Joseon are passed down by manuscripts, bibliographic research is necessary before full-scale content research. This paper confirms the original text of Collection of Smallpoxology (*Dugwa-hwipyeon*) and discusse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publishing Joseon. Collection of Smallpoxology as a medical book of smallpox written by Zhai Liang has had many influences on East Asian smallpoxology, published several times in the Qing and also in the woods in Joseon. This book's publication in Gyeongsang-Gamyeong was published with only some modifications based on the version of chihwadang published in China in 1773, This version is the only version published in Chosun. The composition of this book is similar to Experience prescriptions on Smallpox (Duchang-gyeongheombang)'s composition which was used at the time in Chosun, and its contents are well - organized and well - organized and could serve as a comprehensive guide to smallpox treatment.

Key words: Smallpox: Experience prescriptions on Smallpox, Collection of Smallpoxology, Publication in Gyeongsang-Gamyeong, Edition on Measles, Comments of Smallpoxology's collection

*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사학교실 박사과정 / 화순 마루요양병원 진료과장(lillipute@hanmail.net)
투고일: 2019년 2월 13일 최초심사일: 2019년 3월 3일 게재확정일: 2019년 3월 13일
서지학연구, 제77집, 213-230, 2019. [https://doi.org/10.17258/jib.2019..77.213]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조선과 중국의 교류는 17세기 중반 만주족의 청나라가 중국 대륙을 차지하면서 변화를 겪게 되었다.¹⁾ 병자호란 같은 직접적인 양국의 충돌에 따른 단절도 있었고, 16세기 말부터 양란을 거치면서 조선의 사회 전반이 위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7세기 중반 이후, 조선의 대청관계가 안정됨에 따라 대청 무역과²⁾ 문화 교류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³⁾ 의학 분야에 있어선 특히 전염병 치료와 産科 분야에서 일정한 교류가 계속되어졌다. 이들 분과의학은 출산과 소아 생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분야로, 왕실 구성원의 치료와도 관련될 뿐만 아니라 국가가 수세를 받는 대상의 양적인 도모와 안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였다. 세종조 이후로 조선에서 胎産, 救急, 瘡疹 3종의 분과의학은 국가에서 중요시하는 분과의학의 지위를 차지하였다.⁴⁾

조선후기 전염병은 천연두와 홍역에 중점이 있는데 두 질환이 주요한 전염병 사망 원인이기 때문이다. 천연두는 고려의서인 『향약구급방·소아잡방』에도 豌豆瘡이 언급될 정도로,⁵⁾ 17세기 이전부터 조선에 광범위하게 유행하였다. 그 대응으로 임원준의 『창진집』, 허준의 『언해두창집요』 등 여러 두창 전문서가 간행되었다. 천연두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은 왕실 관련 자료에서도 확인되는데, 특히 숙종은 조선왕들 중에 처음으로 재위 중에 천연두에 이환되어 병증과 치료, 예후에 대한 기록을 『승정원일기』에 남겼다.⁶⁾ 홍역은 17세기 이후에 전국적인 유행 횡수가 잦아지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면이 있고,⁷⁾ 천연두는 기존부터 유행되어 온 점이 다르다. 따라서 천연두의 경우는 홍역과 달리

- 1) 구도영, 『16세기 한중무역 연구』 (과주: 태학사, 2018), 111-115. 조선은 명나라와 조공무역(방식은 17세기 중반 이후 사행무역과 유사)을 통해 교역하였는데 조선은 예외지국이라 하여 다른 나라와 달리 우대받았다. 이러한 우대의 원인에 대해 구도영은 15-16세기를 통틀어 조공의례를 지속적으로 준수한 나라는 조선과 유구국 뿐이었으며, 또한 환문을 통하여 상호 문서 유통이 원활하였던 점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오랑캐로 여기던 만주족의 중국 본토 진출은 중화와 실제 중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세력과의 불일치에서 오는 혼란을 조선에 가져다 주었다.
- 2) 이철성, 『조선후기 대청무역사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2000), 9-10, 59-60, 89-100.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중반 중국과의 무역은 사행무역이 중심이었으며, 일본, 조선, 중국으로 이어지는 중개무역의 형태로 활발히 전개되었다. 1720년대 이후 청일이 직접 교류함으로써, 왜관무역이 쇠퇴하여 중개무역도 함께 쇠퇴하였다. 이후 의주와 개성상인을 중심으로 한 사상층이 성장하여 사행과 무관하게 교역이 이루어졌다.
- 3) 북학파에 이어 추사파로 이어지면서 양국 간 활발한 문화 교류 상이 나타난다.
- 4) 박훈평, “조선시대 의학교과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제29권 2호(2016), 10-11.
- 5) 김옥주는 이에 대해 “두창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으로 이미 성인군에 어느 정도 면역이 생겨 아동질환으로 정착되었음을 보여준다.”라 평했다(김옥주, “조선 말기 두창의 유행과 민간의 대응,” 『의사학』 제2권 1호(1993), 39).
- 6) 고대원, 김동울, 김태우, 차웅석, “숙종의 두창에 관한 승정원일기 의안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제25권 1호(2012), 43-51.
- 7) 박훈평, 『조선 홍역을 읽다』 (서울: 민속원, 2018), 16. 홍역이 17세기 이후 왜 주요한 전염병으로 등장했는지는 그 원인은 명확하게 알려진 바 없다.

기존 조선 임상가의 치료에 대한 연구와 경험이 있었고,⁸⁾ 중국의 치료법을 받아들이면서 조선의 상황에 맞게 변통하는 과정이 있었다.⁹⁾

조선후기 최고의 천연두 치료서로 꼽히는 책은 朴震禱의 『두창경험방』으로 초간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1663년 이전에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¹⁰⁾ 김상현은 『두창경험방』의 특징에 대해 『동의보감』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자신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치료에 필요한 지식을 잘 정리하였는데, 醫案의 형태로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했다.¹¹⁾ 숲에 의하면 『두창경험방』의 편제는 『동의보감·소아문』의 영향인데 각 편제에 따른 단방이나 가감방은 독창적이다.¹²⁾ 『두창경험방』 이후 조선에서의 천연두 전문의서는 『두창경험방』과 유사한 편제에 자신의 경험방과의안 등을 덧붙이는 구성이 대단히 유행하였다. 李蕃의 『龍山療痘編』(1672년), 尹志五의 『봉성신방』,¹³⁾ 등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두창 전문서 계열에서 17세기 이후 중국 의학의 영향은 크지 않다. 『동의보감』에 대한 명대의학의 영향을 빼면, 조선 임상가 개인의 경험이 주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계열과 달리 1800년 전후에 걸쳐 중국 두창 치료학의 도입에 더 적극성을 띄는 흐름도 존재했다. 이는 인두종법¹⁴⁾ 등 중국의 새로운 치료법을 도입하는 성과를 이루어낸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약용의 『종두요지』가

-
- 8) 17세기 이후 조선 두창 전문의서의 출간은 『두창경험방』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상현의 선행연구가 상세하다(김상현, “두창경험방에 나타난 두창 치료의 특징과 그 의의,”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9권 4호(2016), 37-52). 필사본으로 전하는 『고급경험활유방』도 『두창경험방』과 유사한 시기에 저술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청대 의서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는다(김동울, 조학준, “유상의 고급경험활유방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제30권 2호(2017), 119-132).
- 9) 1814년에 저술된 『매정보감』도 청나라에서 도입된 인두법을 언급하는 등 중국의학과 조선의 기존 경험과의 교집을 보여준다(박훈평, 안상우, “한방렬의 매정보감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제30권 1호(2017), 1-9). 정약용의 『종두요지』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에서 논하였다. 일본도 홍역과 천연두의 유행과 대처에 있어 조선과 유사한 면을 지닌다. 일본에서 홍역은 에도시대 이후 새롭게 대두된 전염병이었고, 천연두의 경우는 이전부터 유행해오던 전염병이었다. 다만 일본은 조선과 달리 중국이 아닌 유럽을 통해 인두법, 종두법 등의 새로운 천연두 치료법을 수용한다. Ann Jannetta, 『Epidemics and Mortality in Early Modern Japan』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84), 61-144. ; Ann Jannetta, 『The Vaccinators』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2007), 13, 53-77.
- 10) 대한감염학회, 『한국전염병사』 (서울: 군자출판사, 2009), 235-236.
- 11) 김상현(2016), 50.
- 12) 김상현(2016), 40-43.
- 13) 오준호, “경험방문,” 『선본해제 15 - 의서류』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13), 89-91. ; 김준권, “봉성신방,” 『선본해제 15 - 의서류』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13), 109-110.
- 14) 인두종법은 청대 이전에 중국에 이미 존재했는데(송나라 진종 때(1010년대)의 재상 왕단이 그 아들 왕소에게 인두법을 시행하여 성공한 기록이 전한다. 이종인, 『시종통편·種痘源因』에 나온다. 『시종통편』 원문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검색(<http://www.nl.go.kr/nl>)을 활용했다), 청대에 널리 보급되었다. 이는 청의 지배층인 만주족이 천연두를 이전에 겪어보지 못하여 인적인 피해가 심했던 점과 관련이 있다. Ann Jannetta(2007), 12. 1637년 병자호란 당시 청군이 남한산성을 포위한 뒤로 전쟁이 서둘러 종결되는 과정도 천연두 발병에 대한 만주족의 공포가 반영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구범진, “병자호란과 천연두,” 『민족문화연구』 제72집(2016), 9-57. ; 구범진,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 (서울: 까치, 2019), 259-284). 만주족은 천연두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했다. 그리하여 인두법은 지배층인 만주족의 장려 아래 적극적으로 시도되었고 국가적인 보급이 이루어졌다. Ann Jannetta(2007), 12. 조선의 인두법은 이런 배경 하에 박제가, 정약용, 이종인 등에 의해 1800년대 전후 조선에 수용된다.

저술되고, 19세기 전반 조선에서 중국의가의 천연두 전문서인 『두과회편』(1807년)과 『두진정론』(1808년), 『두진회통』(1834년) 3종이 간행되었다. 19세기 전반에는 두 계열이 결합된 성과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 한방렬의 『매정보감』(1814년),¹⁵⁾ 이종인의 『시중통편』(1817년)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전염병이 조선후기 사회에 미친 영향에 비하여 학계에서 기존의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저자에 대한 관심에서 촉발된 정약용의 『마과회통』과 유이태 저작설 관련 『마진편』 관련 연구를 제외하면, 김상현,¹⁶⁾ 박훈평,¹⁷⁾ 김동울¹⁸⁾ 등 소수에 의해서만 최근 몇 년 사이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조선후기의 전염병 전문서는 상당수가 필사본에 의해 전승되는 만큼, 본격적인 내용 연구에 앞서 간본의 저본과 판본별 전승 관계에 대한 서지연구는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도 이러한 배경에서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과 방법

조선은 국초부터 국가주도로 다수의 의학서를 편집하고 간행하였는데, 조선후기에 간행된 임진왜란 이후의 중국 의학서는 『두과회편』과 『두진정론』,¹⁹⁾ 『두진회통』,²⁰⁾ 『달생비서』²¹⁾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 책은 모두 전염병과 婦科學 관련 서적으로, 특히 『두과회편』은 이들 중 가장 먼저 간행되었다. 『두과회편』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 조선에서의 천연두와 홍역 전문서의 저술, 간행 변천을 이해함에 있어 주요한 문헌이다. 예를 들어 『두과회편』은 유이태의 저작으로 알려진 현존본 『마진편』 저술 시기를 고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헌이다.²²⁾ 그런데 기존에 조선에서 간행된 『두과회편』이 조선의 실정에 맞게²³⁾ 편제와 내용이 일부 바뀌었다고 알려졌지만, 판본 간 비교 대조를 통해 그 변화의 실체가 알려진 바는 없다. 1807년 경상감영 간행 이전에도 『마과회통』의 인용서로 활용되는 등 조선에서 널리 보급된 증거가 있으므로, 조선간본의 저본 확정은 『두과회편』

15) 박훈평(2017), 5. ; 김중권, “매정보감,” 『선본해제 15 - 의서류』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13), 107-108.

16) 김상현(2016), 37-52.

17) 박훈평, 안상우(2017), 1-9. ; 박훈평(2018), 5-125.

18) 김동울, 조학준(2017), 119-132.

19) 『두진정론』은 청대 태의원 어의를 지낸 朱純嘏가 지은 4권 2책의 두창 전문의서이다. 조선간본은 1808년에 목판으로 간행되었다(배현숙 해제 인용. 강순애 등(2013), 96-98).

20) 『두진회통』은 청대 의가인 俞香田이 1786년 경 저술하여 경상감영에서 1834년에 5권 4책의 목판으로 간행하였다(김중권 해제 참조. 강순애 등(2013), 99-101).

21) 청나라 의가 황찬이 쓴 부인과 의서. 조선간본은 전자자체 동활자본으로 간행되었는데 간행 시기는 19세기로 추정될 뿐 미상이다.

22) 김중권은 自序의 특정 연도와 용어를 가지고 유이태 저작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김중권, “마진편의 저술시기 분석,” 『서지학연구』 제51집(2012. 6), 303-313). 이후 유철호는 이를 반박하여 유이태 저작설을 옹호하였다(유철호, “유이태 생애와 『마진편』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5), 1-220). 박훈평은 원문의 전거문헌을 가지고 다시 유이태 저작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그 근거 중 하나가 『두과회편』이다(박훈평(2018), 50, 103-125).

23)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의 『두과회편』 요약 설명.
<http://yoksa.aks.ac.kr/jsp/ci/ImageView.jsp?ci10no=CI_04908&ci20no=CI20_00185-02>

의 여러 이본에 대한 고찰을 전제로 한다.

본고를 통하여 조선간행 『두과휘편』의 저본을 확정하고 조선 간행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논하러 한다. 저본 확정을 위해 『두과휘편』의 조선으로의 전래와 그 수용 시기를 먼저 문헌과 판본을 통해 고증하였다. 조선간본의 의의와 한계를 위해서 당시 통용되던 여러 두창전문서(예를 들어 『두창경험방』)와의 차이를 비교하고 『두과휘편』만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2. 조선간행 『두과휘편』 서지

2.1 형태 및 간행사항

목판본. 4권 2책이 일반적이지만 종종 4권 4책도 있다.²⁴⁾ 四周單邊, 반곽 크기는 17.6 × 12.4cm이고 9행 20자 註雙行이며 上黑魚尾이다. 표지에 “痘科彙編”이란 표제가 있으며 제책방식에 따라 “乾, 坤”(2책) 또는 “仁, 義, 禮, 智”(4책) 등이 기록되어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두과휘편』(개인 소장) 2책본과 4책본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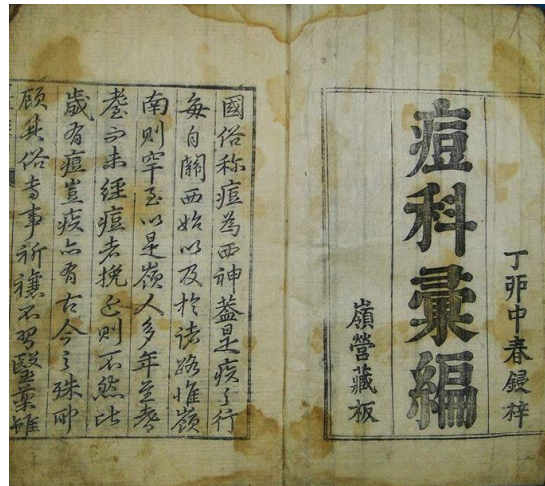
표제지의 “丁卯中春”과 윤광안 서문 말미의 “崇禎三丁卯, 三月上旬”으로 1807년(순조 7) 3월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2월에 본문의 책판 판각이 마무리되고 이후 3월 이후에 서문이 추가적으로 판각되었다(<그림 2> 참조). 표제지의 “嶺營藏板” 등으로 볼 때 간행지는 경상감영인 대구이다.²⁵⁾ 경상감영의 소장 책판 기록에서도 이는 확인된다.²⁶⁾ 『두과휘편』에 이어 1808년 선산군에서

24) 겹장으로 각 권의 분량은 1권 58장, 2권 42장, 3권 51장, 4권 74장이다.

25) 손계영, “조선 후기 경상감영의 출판과 간행본의 특징,” 『영영장판과 영남의 출판문화』 (대구: 영남대학교출판부, 2018), 125.

26) 정형우, 윤병태, 『한국책판목록총람』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118.

『두진정론』, 1834년 경상감영에서 『두진회통』이 간행된다.



<그림 2> 영영본 『두과회통』(개인 소장) 標題紙

그런데 19세기 전반 천연두에 국한하여 경상도에서 수종의 전문의서가 간행되는 까닭은 『두과회편』 윤광안의 서문을 보면 알 수 있다.

“나라의 풍속에 천연두를 西神이라 부르는데, 대개 이 질환의 유행이 매번 관서에서 시작되어 諸路에 미치기 때문이다. 유독 영남에 드물게 오기 때문에 영남 사람은 오랜 세월 늙도록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다. 근세에는 그렇지 않아 해마다 천연두가 있어 ...”²⁷⁾

원래 경상도에선 천연두가 드물게 유행하였는데 당시엔 매해 유행하는 양상으로 바뀌었다. 천연두는 한 번 앓고 나면 평생 면역을 얻는 바이러스 질환이므로, 유행하지 않던 지역으로의 전파는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다.

2.2 편찬체제 및 내용

『두과회편』의 내용구성은 표제지, 윤광안의 서문, 적량의 서문, 목록, 본문 순서이다. 서문을 쓴 尹光顔(1757-1815)은 당시 경상도관찰사로서, 본관은 파평이며 1786년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대사간, 대사성, 충청관찰사 등을 지냈다.²⁸⁾ 권별 내용을 보면, 권1은 原痘論 등 32항목에 걸쳐²⁹⁾ 천연두

27) 『두과회편』 윤광안 서문.

“國俗稱痘爲西神，蓋是病之行，每月關西始，以及於諸路。惟嶺南則罕至，以是嶺人，多年至耆耄而未經痘者。挽近則不然，比歲有痘 …”

생리 병리 등 총론을 설명하고, 권2는 천연두 진행에 따른 증상과 치법을 9항목으로 정리하였으며,³⁰⁾ 권3은 천연두에 수반되는 여러 잡증에 대하여 발열 등 45항목으로 분류 설명하고,³¹⁾ 권4는 승마갈근탕 등 고급경험 치료처방 151방을 수록하였다.³²⁾ 이러한 세부 항목과 처방 수는 당대 널리 활용되던 朴震禧의 『두창경험방』에 비해 매우 상세하다.³³⁾

3. 조선간본의 저본

3.1 『두과유편석의』 인용 문헌의 저술시기

『두과유편석의』의 국내 수용 시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인용한 문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현존하는 자료로 『두과유편석의』가 처음 인용된 문헌은 『疹疫方』이다. 1786년(정조 10) 천연두가 유행하자 정조는 경험방을 올리도록 하였다. 이 때 경상도 칠곡의 박상돈이 올린 『진역방』에 대하여 헤민서가 평하는 내용에 “경상도 의원이 논한 것은, 그 증세를 논하고 약을 쓰는 것이 전적으로 고방인 『두과회편』의 마진치법을 위주로 하여 가감한 것”³⁴⁾이라 하였다. 『두과회편』은 『두과유편석의』의 여러 異名 중 하나로 가장 대표적이며, 다른 의서 중에 『두과회편』이라 칭해진 의서는

28)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DB(<http://people.aks.ac.kr>) 활용

29) 『두과회편』 권1.

“原痘論, 氣血盈備虧消長之理論, 部位論, 頭面預腫頭面漸腫頭面應腫不腫不應腫面, 形色論, 痘成功有次序其色有遞變不同論, 寧教有色面無形修教有形面無色論, 虛實寒熱不同辨, 評諸家用藥之偏要使寒熱適宜論, 汗下論, 熱不可盡除說, 解毒化毒論, 解毒辯妄釋疑論, 痘不爲害惟毒爲害論, 痘有成色當就其成色成就之治法不可執一, 氣尊血分者生毒叅陽位者死解, 痘不以稀密分輕重說, 痘中疹子與正疹丹毒癩點痧子不同論, 痘不與凡瘡同治論, 痘疹不同論, 變黑歸腎腎經留邪論, 首尾忌腦麝論, 治痘始終雜症與痘症當分治論, 治痘始終看法論, 痘不拘日期說, 痘症傳變說, 出長各經見症與傳變成功形色不同辯, 因人以斷痘之輕重說, 因人以定痘之治法說, 痘有三等, 痘有五善說, 痘有七惡說.”

30) 『두과회편』 권2.

“治痘總法, 初熱三日症治, 出見三日症治, 起膿三日症治, 貫膿三日症治, 收醫三日症治, 結痂落痂症治, 痘後餘毒痘後餘症, 異痘四種.”

31) 『두과회편』 권3.

“發熱, 寒熱, 厥, 頭溫足冷, 夾癩, 夾疹, 夾沙, 發泡, 陷伏, 倒靨, 痒, 痛, 腰痛, 腹痛, 腹脹, 口唇, 口舌, 咽喉, 咳嗽, 痰涎, 失音, 譫妄, 噎水吐食, 中風, 驚搐, 倦怠, 喘, 煩燥, 渴, 不食, 汗, 諸失血, 嘔吐噦, 瀉利, 吐瀉并作, 痢, 寒戰咬牙, 二便, 潰爛, 痘疔, 陰囊發腫, 痘後浮腫, 痘毒, 疔瘡口瘡.”

32) 차웅석, “두과회편,” 『장서각한국본해제 자부 2』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198-199.

33) 아래 3.4에서 분류의 특성과 의의에 대해 상세하게 논하였다.

34) 『정조실록』 1786년(정조 10) 5월 28일 기사.

“至於慶尙道醫人所論, 其論症也、命藥也, 專主古方『痘科彙編』, 麻疹治法而損益之. ….”

본고에서 『실록』 원문과 번역은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DB(<http://sillok.history.go.kr>)를 활용했다. 『일성록』 1786년 5월 29일 기사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온다. 『일성록』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를 활용했다.

없다.³⁵⁾ 해민서의 평은 『두과회편』이 세간에 잘 알려진 의서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 의서도 『두과유편석의』 밖에 없다. 현존하는 『진역방』의 내용을 보아도 『두과회편』이 『두과유편석의』를 지칭함을 알 수 있다.³⁶⁾ 따라서 적어도 정조 10년 이전에 조선으로 이 책이 전래되었음은 확증된다. 또한 해민서 의관들도 쉽게 알아볼 만큼 널리 보급되었고, 지방인 경상도 칠곡 고을까지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용된 내용만으로는 저본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없다.

정약용이 저술한 『마과회통』은 1797년 겨울에 초고가 완성되고 1798년에 교정본이 완성되었다.³⁷⁾ 『마과회통·초찰제가성씨서목』에 “翟玉華 痘科釋意”가 나온다.³⁸⁾ 정약용의 인용은 18세기 말에 『두과유편석의』가 널리 보급되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 이밖에 강명길이 1799년 간행한 『제중신편 1책·引用諸方』에도 “痘科彙編”이 나온다.³⁹⁾ 이상 『진역방』과 『마과회통』 등의 인용을 통해 『두과유편석의』가 적어도 1786년 이전에 지방에까지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보급된 판본을 이 자료만으로 알기는 어렵다.

3.2 『두과유편석의』 통용판본

『두과유편석의』는 翟良에 의해 1628년(승정 1)에 저술되었는데 『保赤全書』, 『두과회편』으로도 불린다. 翟良(1587-1671)은 자가 玉華로 중국 益都 출신의 의가이다.⁴⁰⁾ 적량 본인에 의해 『두과유편석의』 말미에 부록으로 자신이 저술한 『小兒雜症方論』이나 馬之騏의 『疹科纂要』(1644년)를 합쳐 간행하였으므로 후대 간행본에선 다른 의서와 합본된 경우가 많다.⁴¹⁾ 원래 별도의 책이었던 『진과찬요』는 적량의 찬집을 거치면서 사용된 표제 『疹科彙編』으로도 많이 불린다.

현존하는 주요 판본은 1728년(옹정 6)의 『天都事守堂刻本』, 1750년(건륭 15)의 『綠野堂刻本』,⁴²⁾ 1773년(건륭 38)의 『致和堂刻本』 등이 있다. 즉 저술은 명나라 말에 되었지만, 중국 내에서의 판본 보급은 주로 청대에 이루어졌다. 서론부에 언급했듯 청 지배층은 천연두의 치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고금도서집성 의부전록 권181-183』에도 『두과유편석의』가 수록되었는데,⁴³⁾ 『고금도서집성』은 1726년에 완성되어 1728년에 걸쳐 간행되므로 여기에 수록된 판본은 1726년

35) 裴沛然, 『中國醫籍大辭典 下』(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2), 911. 다른 의서 중에 『두과회편』이라 칭해진 의서는 없다. 해민서의 평은 그 『두과회편』 잘 알려진 의서.

36) 박훈평(2018), 42-43. 『진역방』은 병증별로 처방과 경험방을 기록하고 말미에 처방구성이 나오는데, 『두과유편석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37) 조성을, 『연보로 본 다산 정약용』(과주: 지식산업사, 2016), 389, 428-429, 441-442.

38)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를 활용했다.

39)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검색(<http://www.nl.go.kr/nl>)

40) 王振國, 『齊魯未刊醫籍拾珍』(北京: 人民軍醫出版社, 2014), 3.

41) 裴沛然(2002), 911, 915. 판본명은 이 책의 명명에 의한다.

42) 裴沛然(2002), 911.

43) 陳夢雷, 『古今圖書集成 醫部全錄 點校本 11』(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542-603.

이전 통용본이다. 이 『고금도서집성』은 1777년(정조 1)에야 동지사행에 의해 한 질이 구입되어 조선에 보내졌다.⁴⁴⁾ 그러나 이는 조선의 유일본으로 규장각에 소장되었으므로(<그림 3> 참조), 일반에 회람되거나 보급되지 못했다. 이 판본의 전래 시기는 명확하지만 당시 국내 수용된 판본은 아니다.



<그림 3> 『고금도서집성』(규장각 소장)⁴⁵⁾

『녹야당각본』은 王振國의 교주본⁴⁶⁾을 통해 알 수 있고, 『치화당각본』은 미국 프린스턴대학의 소장본이 온라인으로 공개되어있다.⁴⁷⁾ 『두과유편석의』의 초기 간본은 『진과회편』 등 별도로 덧붙여진 의서를 제외하면 상중하 3권 형식이 일반적인데 1773년의 『치화당각본』은 4권(4권도 상하로 분권) 형식으로 다소 다르다. 『치화당각본』의 권1은 기존의 상권, 권2, 3은 기존의 중권, 권4상하는 기존의 하권에 해당한다. 『치화당각본』은 『두진유편석의전서』가 표제이며(<그림 4> 참조) 전체가 5권 6책이다. 기존의 중권이 두 권으로 분권된 형식은 조선간본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이는 다른 판본과 다른 『치화당각본』만의 특징이며 조선간본의 저본이 이 판본이라는 확실한 증거이다. 이후의 판본인 1830년(도광 10) 『道牛堂刻本』의 경우를 보면 다시 3권 체제이다. 현존 판본을 보면 대개 3권 체제이며 4권 체제는 드물다. 이밖에도 중국에선 청대에 간행된 다수의 발췌본과 편집본 등이 존재하는데⁴⁸⁾ 이는 『두과회편』이 그만큼 두창 전문서로 잘 보급되고 활용되었다는 증거이다.

44) 『정조실록』 1777년(정조 1) 2월 24일 기사.

45) 2018년 10월 20일, 논자가 규장각을 방문하여 직접 촬영. 1777년에 동지사행에 의해 구입된 책의 일부이다.

46) 王振國(2014), 7-78. 교주 설명에선 『치화당각본』을 저본으로 삼았다고 되어있으나 실제 본문을 보면 그 이전 판본으로 기준삼고 있다.

47) Princeton university digital library (<http://pucl.princeton.edu>)

48) 裘沛然. op.cit.p.912.



<그림 4> 『치화당각본』 권1의 標題紙(프린스턴대 소장)⁴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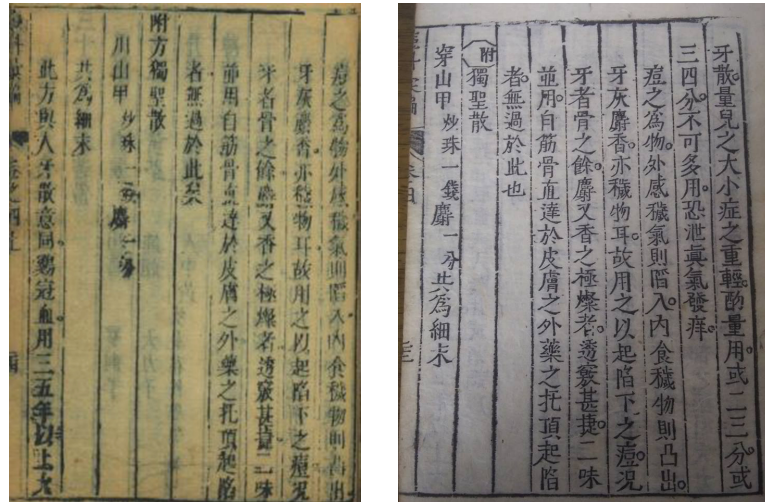
3.3 조선간본과 『치화당각본』(1773년) 비교

1807년 조선간본의 체제는 대개 『치화당각본』을 따르는데 편제와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다. 두 판본의 구성상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5권 6책과 4권 2책(4책)으로 편제가 다르다. 두 판본은 나머지 부분은 같지만 『치화당각본』에서만 권4가 상하로 분권되고 추가로 마지기의 『진과회편』이 권5로 있다. 권4는 古今經驗諸方 151방이 수록되어었는데, 『치화당각본』에서는 앞 62방까지 상권, 나머지 89방은 하권으로 분권되어 있다. 둘째, 표제지와 서문이 다르다. 순서에 있어서도 『치화당각본』은 표제지, 진과회편 서, 두과회편 서 순인데, 조선간본에선 진과회편 서문 자리에 윤광안 서문이 있다. 셋째, 목록이 조선간본에선 권1에 모두 모아 놓은 반면, 『치화당각본』에선 각 권 앞부분에 분리되어 존재한다. 목록 부분의 차이 때문에 일부 본문 글자의 행과 열이 바뀌긴 하지만 조선간본은 『치화당각본』을 그대로 따른다. 조선간본의 어미가 조선후기 감영간본에서 흔한 上下二葉이나 三葉花紋魚尾가 아닌 까닭도 저본인 『치화당각본』이 上黑魚尾이기 때문이다. 편제상의 가장 큰 차이라면 권5에 수록되었던 마지기 저술의 『진과찬요』 내용이 모두 빠진 점이다. 책의 간행 목적이 홍역이 아닌 천연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화당각본』은 그 이전 판본과 체제가 다를 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권1의 19장 앞면을 비교하면 조선간본에만 상단에 “出一本作膿”이 기록되어 있다. 다만 이 기록의 출처가 되는 판본은 알 수 없다. 조선간본에서 이런 식으로 보각된 사례는 권1의 34장 앞면 상단에 “闇一作靑”, 권2 17장 뒷면 상단에 “宜一作惟”도 있다. 해당 면을 보면 조선간본에서

49) Princeton university digital library에서 공개한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글자 하나가 밀렸는데 저본과 별도로 따로 원문을 정서한 뒤 판각한 결과로 추정된다. 獨聖散을 구성하는 약재 “川山甲”(권4 24장 앞면)이 조선간본에선 “穿山甲”(권4 22장 앞면)으로 “附方”을 “[附]”로 수정했는데(<그림 5> 참조) 권4 전체에서 부방은 이렇게 바뀌었다.



<그림 5> 獨聖散 내용 비교(좌 『치화당각본』, 우 조선간본)

위의 사례가 단순히 오자를 수정하는 수준에 불과했다면 완전히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있다. 예를 들어 『치화당각본』은 眼目條 앞부분에 “東垣”으로 시작하는데 그 이전 판본은 모두 “目爲五臟”으로 시작한다. 조선간본도 이 내용은 『치화당각본』과 동일하다. 『치화당각본』의 조선 전래 시기는 분명하지 않은데 대략 1773년 이후에서 1807년 사이로 볼 수 있다. 이 전래시기의 추정은 유이태 저술로 알려진 현존본 『마진편』의 성립시기 판정에 있어 주요한 의의를 지닌다. 왜냐하면 『마진편·眼疾』에 앞서 『치화당각본』에만 나오는 “(이)동원이 말하기를 혈을 얻으면 능히 볼 수 있다. 東垣曰得血而能視.” 문장을 원문 그대로 전채하여 인용하기 때문이다.⁵⁰⁾ 이 원문은 기존의 『두과회편』의 판본에 없다가 1773년 『치화당각본』에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다. 선행연구에서 조선간행 『두과회편』의 저본을 확정하지 못하고 저본이 조선에서 전승된 필사본일 가능성 때문에 후대판본 정도로 추정했지만,⁵¹⁾ 저본의 확정으로 현존본 『마진편』의 저술시기의 상한연도를 1773년으로 볼 수 있다. 조선간본이 간행되기 전에 중국 판본을 통해 『마진편』의 저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존본 『마진편』의 내용 모두가 1773년에야 이루어졌다 볼 수는 없다. 일부 내용은 그 이전에 통용되던 이론과 홍역 처방일 수 있다. 다만 현존본의 성립은 1773년 이상으로 올라가기 어렵다.

이밖에 『두과회편석의』의 저술은 명대에 이루어졌지만 이후 청대에 체제와 내용의 일부 개정을

50) 박훈평(2018), 120.

51) 박훈평(2018), 50.

거쳤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치화당각본』을 저본으로 삼은 건 청대 두창학의 영향 아래 재판된 판본을 받아들인 셈이다. 『두과유편석의』의 판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두과유편석의』 판본 비교

판본명	『녹야당각본』	『치화당각본』	조선간본
간행 시기	1750년	1773년	1807년
내용 편제 ⁵²⁾	3권 3책	4권 5책	4권 2책(4책)
첨부된 의서	있음	있음	없음
목록의 위치	1권 앞부분	1권 앞부분	각 권 앞부분
眼目 條 처음 구절	目爲五臟之精氣	東垣	東垣

4. 조선간본의 의의와 한계

4.1 조선간본 간행의 배경

19세기 초반 경상도에서도 천연두가 맹위를 떨치자, 그 대응으로 간행된 두창 전문서 중에 『두과회편』이 시초라는 점은 당시 조선에서 유통되던 두창전문서 중에 『두과회편』의 가치를 경성관찰사가 높게 평가한 결과이다. 1799년 간행된 내의원 首醫 강명길의 종합의서 『제중신편』에서 인용된 전염병 전문의서는 『두과회편』과 『痘疹心法』뿐이다. 『두진심법』은 명나라 의가인 萬全이 1568년에 저술하였는데 임진왜란 이전의 두진전문서이다. 즉 강명길 또한 17세기 이후의 중국 두창전문서 중에 선택한 의서는 『두과회편』뿐이었다. 정약용 또한 『마과회통·古醫』에서 『두과회편』의 저자 적옥화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⁵³⁾

김상현은 조선시대 두창 전문서를 편제에 따라 둘로 분류했는데,⁵⁴⁾ 이에 따르면 『두과회편 권2』는 『두창경험방』과 편제가 유사하다. 즉 發熱-出痘-起脹-貫膿-收靨의 순서로 질환의 진행에 따라 증상과 그에 따른 치법을 논한다. 즉 『두과회편』의 편제는 조선후기 천연두를 치료하던 의가들에게 익숙한 방식의 편제였다. 金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두창경험방』은 내용상 『동의보감·소아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⁵⁵⁾ 『동의보감·소아문』을 살펴보면 『창진집』 계열의 편제인 「豫防」, 「滅癩」 등이 항목에서 나타나, 『언해두창집요』의 편제 방식과 혼재되어있다. 그러므로 『동의보감·소아문』

52) 마지기의 『진과회편』 등 추가된 의서에 해당하는 편제는 제외하였다.

53) 『마과회통·古醫』.

“翟良專於痘而旁及疹家。然細觀其痘書諸論，精確沈細，無與倫比。”

54) 김상현(2016), 40.

55) 김상현(2016), 41-42. 『두창경험방』의 편제방식은 『동의보감』이 아닌 『언해두창집요』 형식이다. 그러나 『언해두창집요』가 아닌 『동의보감 소아문』에서 직접 인용한 부분이 존재한다.

의 두창 관련 내용이 『두창경험방』에 비해 상세하긴 하지만, 『두창경험방』 계열의 이론과 처방에 익숙한 의가들이 그대로 쓰기에 부적절했다. 그런데 『두과회편』에선 『창진집』 계열의 편제 항목들이 전혀 없어, 『두창경험방』에 익숙한 임상가가 활용하기가 쉬운 편제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편제 방식 자체는 명대의학 이후 다른 두창 전문서에서 종종 보이므로 『두과회편』만의 독특한 장점은 아니다. 『두과회편』은 『두창경험방』과 유사한 편제인데다가, 더하여 다른 두창 전문서에 비해 내용도 풍부하고 목차와 내용이 잘 정리되어 천연두 치료의 종합 지침서로서의 역할이 가능했다. 『두과회편』에서 권1은 총론, 권2는 질환의 진행에 따른 증상과 처방, 권3은 두창에 수반되는 發熱 등의 증후, 권4는 처방 내용을 다루는데 각 분류에 있어 『두창경험방』에 비해 상세하다. 구체적으로 총론 부분을 보면 『두창경험방』은 4항목, 『동의보감·소아문』은 16항목에 불과하지만, 『두과회편』은 32항목에 달한다. 총론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 더욱 상세함을 알 수 있다. 두창에 수반되는 증후도 45항목에 이르러 의가가 실제 임상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두과회편』의 구성에서 당시 유행하던 조선의 『두창경험방』이나 중국의 『두진정론』, 『두진회통』 등과 다른 점이 있다. 바로 처방 내용만을 따로 뽑아서 말미에 둔 점이다. 이는 이후 조선의 전염병 의서의 구성 방식에 영향을 주는데, 1798년에 완성된 정약용의 『마과회통』이나 1827년에 간행된 이종인의 두창전문서 『시종통편』은 이런 방식을 답습하였다. 『두과회편』과 주요 두창관련 의서의 항목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주요 두창 관련 의서의 항목수 비교

서명	총론	질환 진행별 증상과 처방	기타 증후 및 처방 (『창진집』 계열의 편제)	두창 수반 증후	기타
『동의보감·소아문』	① 痘癩疹三證專 由胎毒 이하 6항목 ④ 辨痘吉凶 이하 10항목	② 痘瘡諸證 이하 8항목	③ 通治 이하 2항목 ⑥ 護眼 이하 2항목	⑤ ⁵⁶⁾ 痘瘡諸證 이하 20항목 ⑦ 痘後雜病 이하 7항목	없음
『두창경험방』	(夫痘瘡爲病) 이하 4항목	發熱三朝 이하 7항목	없음	없음	醫案
『두과회편』	原痘論 이하 32항목	治痘總法 이하 9항목	없음	發熱 이하 45항목	古今經驗治療 處方 151방

『두창경험방』이 『언해두창집요』에서 만들어진 조선 두창전문서의 기본 구조를 보급, 일반화시키고 조선만의 경험과 醫案이라는 전통을 이후 의서에 남겼지만, 두창 전문서로서는 이론과 처방에서 소략한 면이 있었다. 반면 『동의보감 소아문』은 더 상세하지만, 『두창경험방』의 편제와는 다른 방식이었다. 그리하여 경상도에 새롭게 창궐하는 천연두 문제에 대응하면서, 기존에 축적된 경험방을

56) “①, ②” 등은 내용 순서이다.

활용하면서 새로운 처방을 모색할 수 있는 선택이 바로 중국의서 『두과회편』이었다.

4.2 조선간행 의의 및 한계

『두과회편』은 비록 중국 의가의 책이지만 『두창경험방』에 익숙한 기존의 조선 의가들의 경험을 적용시켜 해석할 수 여지가 있었고, 이러한 의서의 도입을 통해 조선 두창학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동의보감 소아문』을 통해 명대까지의 중국 두창학을 정리하고 『연해두창집요』라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낸 뒤, 그 틀 안에서 『두창경험방』 이후의 의서들은 조선의 치료 경험과 의안들을 담아갔다. 18세기 후반에 소개된 『두과회편』 등의 중국어서는 조선과 단절되었던 중국 두창학의 성과를 조선의 의가들이 수용하고 조선화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맡는다. 『두과회편』의 내용을 활용하여 조선에서 저술된 사례로 『增補疹科精義錄』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청대 의가 楊起嚴의 저작인 『疹科精義錄』(1708년 추정)을 중심으로 하여 『동의보감』, 『두과회편』의 천연두, 홍역 관련 내용들을 발췌해 이론을 보충하고 임상위주로 편제를 바꾸었는데, 모본인 『진과정의록』 자체도 『두과회편』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그림 6> 참조).⁵⁷⁾



<그림 6> 『증보진과정의록』(개인소장) 표지와 판권지

또한 『두과회편』이 경상감영에서 간행된 것은 임진왜란 이후 중국의 두창학이 공적인 영역에서

57) 저자 미상의 필사본으로 전하다 1923년 9월 7일에 전남 구례 진의록 출판소에서 목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진의록은 “진과정의록”의 준말이다(박훈평(2018), 83-87).

받아들여진 사례로서 주목된다. 앞서 『제중신편』 사례와 같은 단순한 인용을 넘어 관청이 제공하는 의학 텍스트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과회편』은 후대의 재판에도 불구하고 1628년이라는 저술시기 자체의 한계로 인두법을 포함한 최신 중국 두창학의 성과가 결여되었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 1807년 4월 『두과회편』이 간행되고 바로 다음해 10월에 『두진정론』이 간행된 것은 이 책에 『두과회편』에 없는 인두법 등이 수록되었기 때문이다.⁵⁸⁾

5. 결 론

적량에 의해 저술된 두창 전문의서인 『두과회편』은 청대에 여러 차례 간행되었고, 조선에서도 목판으로 간행되어 동아시아 두창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본고를 통해 조선간행 『두과회편』의 저본을 확정하고 조선간본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논하고자 했다.

저본 확정을 위해 먼저 『두과회편』의 조선으로의 전래와 그 수용 시기를 문헌과 판본을 통해 고증하였다. 그 결과 조선간본은 1773년에 중국에서 간행된 『치화당각본』을 저본으로 삼아 일부 수정만 한 채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조선간행 『두과회편』과 동일한 내용을 인용한 의서들의 성립시기의 상한연도는 1773년이 된다. 예를 들어 현존하는 『마진편』의 성립시기도 그렇게 추정된다.

19세기 초반, 두창의 유행에서 벗어나 있던 경상도에서도 천연두가 맹위를 떨치자, 그 대응으로 여러 두창 전문서가 간행되었는데 1807년의 『두과회편』은 그 시초였다. 이는 당시 두창전문서 중에 『두과회편』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결과이다. 이 책의 편제는 당시 조선에서 통용되던 『두창경험방』의 편제와 유사한데다, 내용도 풍부하고 잘 정리되어 천연두 치료의 종합 지침서로서의 역할이 가능했다. 『두과회편』은 비록 중국 의가의 책이지만 『두창경험방』 전통에 익숙한 기존의 조선 의가들의 경험을 적용시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조선후기 『동의보감·소아문』, 『언해두창집요』, 『두창경험방』의 전통을 통해 축적된 치료경험과 『두과회편』 등을 통한 임진왜란 이후 중국 두창학의 성과가 결합되어 이후 새로운 조선 두창학의 진전이 이루어진다. 또한 편제 방면에 있어서 말미에 처방편을 따로 두는 방식은 이후 조선의 전염병 의서에 영향을 주었다. 1798년의 『마과화통』과 1817년의 『시종통편』이 그 예이다.

58) 1800년 전후로 인두법이 박제가, 정약용, 이종인 등에 의해 국내에 처음 도입되었다. 박제가는 종두법이 담긴 『의종급감』을 입수하여 규장각에 보관하였고, 정약용은 『종두요지』(1800년)를 남겼고, 『매정보감』(1814년)이 저술되고, 『시종통편』(1817년)이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1808년 선산군에서 간행된 청나라 어의 朱純嘏의 『두진정론』 「種痘論」, 「不可種痘論」을 통해 필사본이 아닌 조선간본에선 최초로 인두법을 소개하였다.

<참고문헌>

- 고대원, 김동울, 김태우, 차용석. “숙종의 두창에 관한 승정원일기 의안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제25권 1호(2012). 43-51.
- 구도영. 『16세기 한중무역 연구』. 파주: 태학사, 2018.
- 구범진. “병자호란과 천연두.” 『민족문화연구』 제72집(2016). 9-57.
- 구범진.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 서울: 까치, 2019.
- 김동울, 조학준. “유상의 고금경험활유방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제30권 2호(2017). 119-132.
- 김상현. “두창경험방에 나타난 두창 치료의 특징과 그 의의.”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제29권 4호(2016). 37-52.
- 김옥주. “조선 말기 두창의 유행과 민간의 대응.” 『의사학』 제2권 1호(1993). 39.
- 김중권. “마진편의 저술시기 분석.” 『서지학연구』 제51집(2012. 6). 303-313.
- 김중권. “매정보감.” 『선본해제 15 - 의서류』.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13. 107-108.
- 김중권. “봉성신방.” 『선본해제 15 - 의서류』.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13. 109-110.
- 대한감염학회. 『한국전염병사』. 서울: 군자출판사, 2009.
- 박훈평. “조선시대 의학교과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제29권 2호(2016). 10-11.
- 박훈평, 안상우. “한방렬의 매정보감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제30권 1호(2017). 1-9.
- 박훈평. 『조선 홍역을 앓다』. 서울: 민속원, 2018.
- 오준호. “경험방문.” 『선본해제 15 - 의서류』.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13. 89-91.
- 유철호. “유이대 생애와 『마진편』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5.
- 윤광안. 『두과회편』. 대구: 경상감영, 1807(개인 소장).
- 이철성. 『조선후기 대청무역사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2000.
- 손계영. “조선 후기 경상감영의 출판과 간행본의 특징.” 『영영장판과 영남의 출판문화』. 대구: 영남대학교출판부, 2018. 125.
- 정형우, 윤병태. 『한국책판목록총람』.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 조성을. 『연보로 본 다산 정약용』. 파주: 지식산업사, 2016.
- 차용석. “두과회편.” 『장서각한국본해제 자부 2』.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198-199.
- 王振國. 『齊魯未刊醫籍拾珍』. 北京: 人民軍醫出版社, 2014.
- 陳夢雷. 『古今圖書集成 醫部全錄 點校本 11』.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 裘沛然. 『中國醫籍大辭典 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2.
- Ann Jannetta. 『Epidemics and Mortality in Early Modern Japan』.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84.
- Ann Jannetta. 『The Vaccinators』.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2007.

[전자정보원]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검색 <<http://www.nl.go.kr/nl>>. [접속일 2019.1.10.]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DB <<http://sillok.history.go.kr>>. [접속일 2019.1.10.]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접속일 2019.1.10.]
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http://yoksa.aks.ac.kr>>. [접속일 2019.1.8.]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DB <<http://people.aks.ac.kr>>. [접속일 2019.1.11.]
Princeton university digital library <<http://pucl.princeton.edu>>. [접속일 2019.1.10.]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 Wung-Seok. 2012. "Dugwa-hwipyeon." *An annotated bibliography of Korean books in Jangheunggak - books of Sciences and Arts 2* (pp. 198-199). Seongnam: Academy of Korean Studies.
- Jo, Seong-Eul. 2016. *Annual report by Dasan Jeong Yak-yong*. Paju: Jisiksanup Publishing Co.
- Jung, Hyung-Woo and Yun, Byung-tae. 1979. *Korean Printing Woodblocks list overview*. Seongnam: Academy of Korean Studies.
- Kim, Dong-Ryul and Jo, Hak-Jun. 2017. "A Study on Yu Sang's Book on Smallpox."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30(2): 119-132.
- Kim, Jung-Kwon. 2012. "Study on the writing year of the Majinpyeon."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51: 303-313.
- Kim, Jung-Kwon. 2013. "Bongseong-Shinbang." *An annotated bibliography of manuscript books in the central national library 15* (pp. 109-110). Seoul: The central national library.
- Kim, Jung-Kwon. 2013. "Maejeong-Bogam." *An annotated bibliography of manuscript books in the central national library 15* (pp. 107-108). Seoul: The central national library.
- Kim, Ock-Ju. 1993. "Smallpox Epidemics and Folk's Responses in the late Choson Period."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2(1): 39.
- Kim, Sang-Hyun. 2016. "The characteristics of treatment of smallpox and its significance recorded in the Duchanggyeongheombang."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9(4): 37-52.

- Ko, Dae-Won, Kim, Dong-Ryul, Kim, Tae-Woo and Cha, Wung-Seok. 2012. "Study on the Clinical Records of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anasty."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5(1): 43-51.
- Koo, Bum-Jin. 2016. "Smallpox and Qing Invasion of Choson in 1637." *Korean Classics Studies*, 72: 9-57.
- Koo, Bum-Jin. 2019. *Pyeongja-horan, Hong Taiji's war*. Seoul: Kachibooks.
- Koo, Do-Yeong. 2018. *A Study of Korea and China Trade in the 16th Century*. Paju: Thaeaksa.
- Lee, Chul-Sung. 2000. *A study of Choson's trade reation with Ching*. Seoul: Kookhakjalyowon.
- Oh, Jun-Ho. 2013. "Gyeongheombangmun." *An annotated bibliography of manuscript books in the central national library 15* (pp. 89-91). Seoul: The central national library.
- Park, Hun-Pyeong. 2016. "Review on Medical Texts in Joseon Dynasty."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9(2): 10-11.
- Park, Hun-Pyeong. 2018. *Joseon, suffering from measles*. Seoul: Minsokwon.
- Park, Hun-Pyeong and Ahn, Sang-Woo. 2017. "A Study on the Maejeong-Bogam of Dr. HAN Bangryeol."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30(1): 1-9.
- Son, Gyoung. 2018. "Characteristics of publishing and publications of the late Joseon period's Kyeongsang-Gamyeong." *Yeongyeon-Gjangpan and Yeongnam's publishing culture* (p. 125). Daegu: Yeungnam University Press.
- The Korean Society of Infectious Diseases. 2009. *Korean epidemic history*. Seoul: Gunja Pulisher.
- Yoo, Chul-Ho. 2015. *Yoo Itae Life and Marjinpyeon Research*. Doctoral thesis. Kyung 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 Yun, Kwang-An. 1807. *Dugwa-hwipyeon*. Daegu: Gyeongsang-Gamyeong (Private collection).